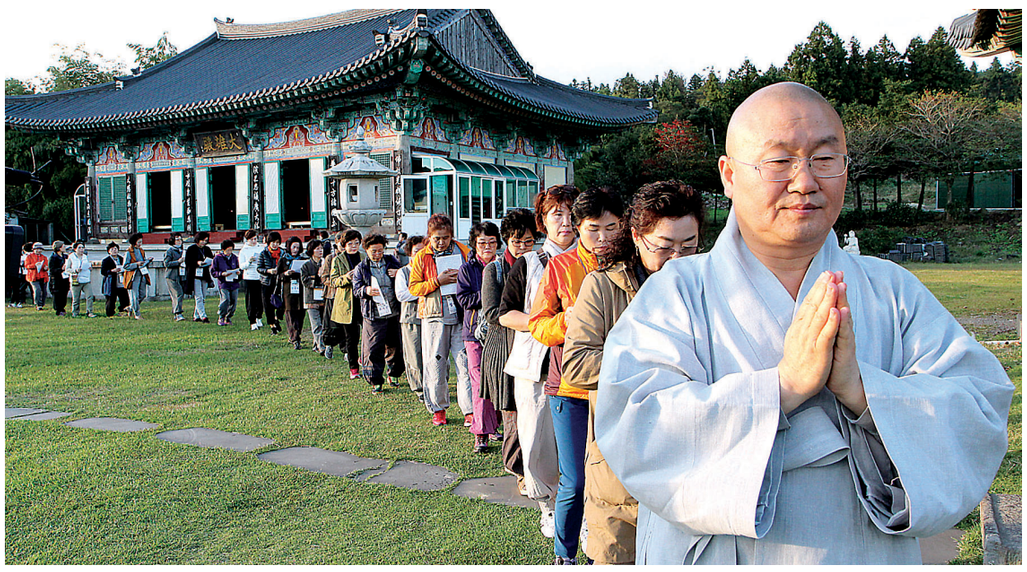

제주 법화사에서 대중들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제주 천광사로 이동하는 순례단. 제주불교 신앙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힐링의 섬’ 제주서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BTN 제주불교 성지순례 현장을 가다

“이제 서로를 안아주세요. 7초간만. 토닥이지도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돌아면서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손을 잡아주면서.”

제주 서귀포시 법화사 대웅전 앞에 원을 두르고 서 있는 사부대중들은 스님의 지시에 움직였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았고, 교차로 깍지를 낀 상태로 서로의 배를 두드렸다. 돌아가며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몇몇 참가자들은 감정에 복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울고 웃고 서로를 안아주며, 대중들은 서로가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세상만사 스님 4인방과 함께

BTN 인기 토크쇼 ‘세상만사’에 출연하고 있는 심산 스님(부산 홍법사 주지),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 만초 스님(울산 해남사 주지), 주석 스님(함양 대운사 주지)이 제주도를 힐링시켰다.

BTN불교TV(사장 구본일, 이하 BTN)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절로 가는 길’ 제주불교 성지순례를 진행했다. 제주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절로 가는 길’의 순례 여정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해준 것은 세상만사 지도법사 스님들이었다.

이번 순례는 ‘세상만사’ 시즌1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출연진 스님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순례의 시작은 제주불교계가 만든 ‘절로 가는 길’ 중 ‘지계의 길’의 시작점인 관음정사에서 이뤄졌다. 순례단은 관음정사 대웅전에서 입재식을 봉행하고 순례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다.

심산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찾고자 하는 행복을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초 스님은 “순례는 여행과 다르다. 순례는 보고 듣고 맛보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며 “2박 3일동안 120명 도반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정과 행복을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흐린 하늘에 광명이 ‘활짝’

입재식을 마친 순례단은 관음사, 천왕사, 존자암, 법화사 등 사찰을 순례했다. 제주불교 신앙의 단면을 알 수 있는 곳은 천왕사와 존자암이었다. 모두 소원성취와 구세를 바라는 나한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천왕사는 한라산 99곡 중 가장 신비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주지 지오 스님은


천왕사에서 합장하고 있는 세상만사 스님들.

“인도의 16대 아라한 발타라 존자가 제주에 주석했다는 설화가 있다. 창건주인 비룡 스님은 이를 알고 진정한 나한도량을 만들기 위해 천왕사를 창건했다. 전국에서 산신기도를 드리기 위해 천왕사를 많이 찾는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발타라 존자에 대한 설화의 해당 사찰은 존자암이다. 존자암은 ‘오백나한에게 빌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주 불자들의 영험한 기도처였고, 제주 삼성(三性)이 일어났던 탐라국 시절에 이미 불교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역사적 도량이기도 하다.

존자암까지 오르는 길은 산길을 약 20여 분 꼬박 올라야 한다. 가파르지 않지만, 제법 숨이 찼다. 구름이 많은 하늘이 언제 비를 뿌릴지 몰라 걸음을 재촉한 탓도 있었다. 존자암 대웅전 앞에서 자리한 순례단은 만초, 하림 스님의 지도에 따라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단체 명상을 진행했다.

주석 스님은 참가 대중에게 관음보살 목걸이를 나눠줬고, 받아든 대중들은 ‘참회진언’을 독송했다. 참회진언이 한라산 자락을 얼마나 울렸을까. 이내 하늘의 먹구름은 사라지고, 환한 햇살이 존자암을 비췄다. 순례 대중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진언은 이내 ‘광명진언’으로 바뀌었다.

해상왕 장보고가 건립한 법화사에서는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우는 단체 프로그램이 만초 스님의 주도로 열렸다.

“마음 내려놓고 힐링했어요”

순례는 메이즈랜드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미로 테마파크인 메이즈랜드는 독실한 불자인 이동한 대표가 불심으로 하나하나 만들어낸 곳으로, 108개 갈림길과 팔정도를 의미하는 미로 등 불교가 곳곳에 녹아있다.

순례단은 메이즈랜드를 체험하고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석 스님은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도 가슴 깊이 가져가면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라며 “순례를 함께 해 행복했다. 일상에 돌아가서도 순례의 기억이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림 스님은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수염이 자랐다. 2년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이번에 느낀 감정을 서로에게 상기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만초 스님은 대중에게 숙제를 냈다. 스님은 “2박 3일의 아름다운 이벤트를 조금 더 호들갑스럽게 주위 10명의 사람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자랑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향기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산 스님은 “순례는 성지와 리더, 대중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상상이상의 기회였고, 행복했다. 모두 행복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대중들은 스님들과 함께 만든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순례를 회향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참석한 이삼순(69 · 수원) 씨는 “스님과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성지 순례 프로그램에 꼭 참석할 것”이라 밝혔다. 손자 조일성(정자초 3) 군과 손녀 조시은(이목중 1) 양도 “순례라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같았다. 즐거웠다”고 말했다.

문길순(53 · 김해) 씨는 “순례를 통해 부처님 정법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경수(58 · 부산) 씨는 “평소 BTN 세상만사를 꼭 본다. 순례뿐만 아니라 스님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마음이 힐링됐다”고 했다.

제주= 신성민 기자


제주 법화사에서 손을 맞잡은 대중들. 만초 스님이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은 울고 웃으며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제4차 깨달음 무료공개강좌

역대 조사분들의 어록이나 논서에
답습되지 않은 또 다른 안목의
특별한 강좌가 펼쳐집니다.....



업(業)과의 전쟁

▶ 일 시 :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2시
▶ 장 소 : 깨달음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 문 의 : 1899-9532

깨달음 센터
enlightenment center
NAVER 깨달음센터 검색